

산림청

포토뉴스

제 28대 정광수 산림청장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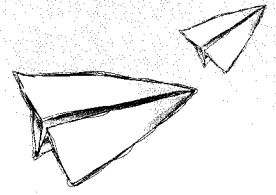


정광수 산림청장은 23일 오후 4시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산림 부문에 가지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임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재해로부터 산림과 국민을 지키고 산림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데 힘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인턴 발대식



산림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 해외인턴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2월말까지 1개월여의 국내교육 및 적응훈련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솔로몬, 중국, 몽골 등 해외산림사업 현장에서 해외조림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인턴사원 신분으로 산림조사, 산림사업 관리, 임산물 가공현장 지원업무 등의 해외산림개발 현장업무를 익히게 된다.



2009년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산림담당 국(과)장, 지방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 임원 및 이사조합장 등 100여명과 50여개 산림 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산불예방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당부하고, 일선 산림부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산림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승수 국무총리 숲가꾸기 현장 및 펠릿제조공장 방문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녹색뉴딜사업' 핵심프로젝트인 '녹색숲가꾸기' 현장(경기도 여주군 소재)과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펠릿제조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하영제 산림청장으로부터 녹색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효과, 산림바이오에너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부문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바이오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며 "경제난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